

제주도 방언 보조용언 ‘어 붙다’에 대하여

고 창근*

차례

1. 서론
2. ‘어 붙다’의 의미 특성
 - 가. 동작동사와 결합할 때
 - 나. 상태동사와 결합할 때
 - 다. ‘-어시-’, ‘-엄시-’와 결합할 때
3. 결론

1. 서론

제주도 방언에서 ‘어 붙다’¹⁾는 본용언 ‘버리다’에서 문법화하여 보조용언²⁾으로만 기능하고 있다.

• 제주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 1) 보조용언 ‘붙다’는 동음이의어 ‘붙다’(바람이 붙다, 휘파람을 붙다)와 구별해야 하고, 또 선행 어미 ‘-어’에 의해 연결됨을 밝히기 위해 ‘-어 붙다’로 표시한다.
- 2) 보조용언은 최현배(1929/1989)에서 허웅(1975/1988)에 이르기까지 그 성격, 목록 등이 검토되었으며 특히 1970년대 이후 보조 용언 범주 설정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그 전반에 대한 연구 성과가 정리 평가된 바 있다.
권재일(1985:17)은 전통적으로 기술해 온 보조용언과 ‘이다’를 함께 묶어, 서술 기능 수행의 관점에서 이를 의존용언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법화가 의미변화의 한 요인으로 문장의 한 성분인 어휘단위가 본래의 어휘의미를 잃고 문법적 기능 내지 의미기능을 갖게 되는 변화³⁾라고 말한다면 제주도 방언에서의 ‘-어 불다’는 문법화의 중간 과정에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어 버리다’에 대해, 앞선 연구에서는 주로 ‘먹어 버렸다’를 해석하면서 ‘완료상’, ‘종결상’, ‘화자의 주관적 평가(바람직하지 않음, 환원 불가능함, 부담의 제거, 악의성)’ 등으로 다양하게 그 의미를 밝혀 왔다.

그러나 그 의미가 다양하고, 어떤 경우는 정 반대의 뜻을 지닌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그 본질적인 의미 특성이 따로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문법화⁴⁾의 중간 단계에 있는 제주도 방언의 보조용언 ‘-어 불다’의 의미 특성에 대하여 고찰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어 불다’의 의미 특성

현대국어 ‘버리다’의 의미는 중세국어의 ‘부리다’와 크게 다르지 않다.⁵⁾ 그러나 방언에서는 본용언으로서 ‘버리다’가 힘을 잃고 그 자리를

김지홍(1982:41)은 보조동사의 앞에만 나타나는 어미 ‘-아/어’를 含意 動詞 語尾라 하고, 보조동사는 언제나 含意文(entailment)을 갖기 때문에 含意 動詞라 하였다.

황병순(1987)은 상표시 복합동사로 처리하고 있다.

- 3) 이태영(1993), 국어 동사의 문법화 연구, 한신문화사, p.129.
- 4) 문법화란 한 형태소가 어휘적 지위에서 문법적 지위로, 혹은 파생형에서 굴절형으로의 변화처럼 덜 문법적인 것으로부터 더 문법적인 것으로 범위가 증가되는 현상이다(Jerzy Kurytowicz 1975[1965]:52) 이성하(1998), 문법화의 이해, 한국문화사, p.23.
- 5) <표준국어 대사전>(1999, 국립국어연구원)에 등재된 ‘버리다’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1- (1) 가지거나 지니고 있을 필요가 없는 물건을 내던지거나 쏟거나 하다.
 - (2) ① 못된 성격이나 버릇 따위를 떼어 없애다.

'데끼다'에 내주고 있다. 대상이 물건이 아닌 경우에는 '데끼다'가 안 쓰이고 '버리다'가 쓰이나 그 예가 흔치 않다.⁶⁾

방언의 보조용언으로서 '-어 불다'는 매우 생산적으로 쓰이고 있다. 결합되는 선행어와 후행어미에 따라 그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 보겠다.

가. 동작동사와 결합할 때

선행어가 동작동사일 때 '-어 불다'는 '아쉬움, 부담 제거, 기대에 어긋남, 시원함 등의 심리 상태를 드러낸다.'⁷⁾ 따라서 '의외성'의 양태적 의

- ② 가정이나 고향 또는 조국 따위를 떠나 스스로 관계를 끊다.
- ③ 종사하던 일정한 직업을 스스로 그만두고 다시는 손을 대지 아니하다.
- ④ 직접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과의 사이를 끊고 돌보지 아니하다.
- ⑤ 품었던 생각을 스스로 잊다.
- ⑥ 본바탕을 상하거나 더럽혀서 쓰지 못하게 망치다.

2- (동사 뒤에서 '-어 버리다'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나타내는 행동이 이미 끝났음을 나타내는 말. 그 행동이 이루어진 결과, 말하는 이가 아쉬운 감정을 갖게 되었거나 또는 반대로 부담을 덜게 되었음을 나타낼 때 쓴다.

- 6) 다음은 <한국구비문학대계 9-1·2·3>에 방언 본용언 '버리다'가 쓰인 예이다. 대상이 물건일 경우 사용 예가 민요에서 한 번 보인다.

"입도 싫경 나 젊은때 나를도나 버리소서

여도 당실 연자 버리고

아지바님 버려두고

젯 고고리 눈순애기 버려두곡 들는(따르는)애기 버려두곡

저 아기덜 어머님전 버려 두곡

저 아기덜 성재간 버려 두곡

어머님도 구석애 버려 두고

요신세만 허당 세상을 보릴까

세상천지 만물중에 어린 조식 버려나 놓고"

- 7) 김미영(1996:102)은, "후행용언 '-어 버리다'가 보조용언이란 기능을 획득하게 될 때는 '종결상'이란 상적 기능을 나타내는데, 일차적 기능으로서는 '제거성 종결상'을 나타낸다."고 하면서 부차적 기능으로서 '부담의 제거 인식'을 제시하고 있다.

손세모들(1996:189)은 '버리다'가 단순한 동작의 '완료'가 아님을 지적하고 있다. '버리다'는 종래에 '완료'라는 상적인 의미를 표시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미를 갖는다.⁸⁾ 즉, 동작주의 행위가 의도적인 것으로 평가되어 화자에게는 의외의 일로 인식되는 것이다.

(1) (철수와 함께 청소를 하라고 시켰는데)

- a. 철순 가져.
- b. 철순 가 불었저.

(1a)보다는 (1b)가 쓰이는 것이 자연스럽다. (1a)는 철수가 떠났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반면 (1b)는 철수가 떠났다는 사실 이외에, 그 사실에 대해 화자가 어떻게 생각하며, 또 그 사실이 화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는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⁹⁾

(2) a. 청소해라.

b. 청소해 불라.

(2a)는 늘 시키던 명령이다. 그러나 (2b)는 ‘청소를 하라고 했는데 왜 안 하니? 빨리 해서 욕먹지 말아라(빨리 행동으로 옮겨서 부담감에서 벗어나라).’는 뜻을 담고 있다.

일반적이었지만 그는 ‘완료’를 전제로 하되 그 밖의 의미를 덧붙여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버리다’가 문맥에서 상반되는 심리 태도 표시에 쓰일 수 있는 것도 이런 의미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 8) 김기혁(1996:313)은 “‘그가 떠나 버렸다’라는 문장에서 주어 ‘그’에 대한 중심 서술어가 ‘떠나다’인가 ‘버리다’인가는 언어 인식의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서술어는 본동사인 ‘떠나다’이고 보조동사 ‘버리다’는 화자의 바람이 사라짐 등의 의미 해석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주어에 대한 서술어라기보다는 화자의 인식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양태적인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라 하고 있다.
- 9) 이성하(1998:251)는 ‘그가 그녀의 밥을 먹어 버렸다.’는 문장에서 ‘버렸다’는 “완료적인 상을 표시해 줄 뿐 아니라 해당행위에 대한 화자의 가치 평가 즉, 해당행위가 다시 환원불가능함, 바람직하지 않음, 악의성 등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의미 추가 현상은 화용적 추론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3) a. 밥 먹어시냐?

b. 밥 먹어 붙어시냐(베시냐, 비어시냐)?

(3a)는 먹었는지 여부만 묻고 있는 데 비해, (3b)는 '먹지 않았으면 더 맛있는 걸 사줄 것을, 남았다면 다른 사람 나눠줄 것을' 하는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 예에서 보듯이 동작동사를 선행어로 할 때 '-어 붙다'는 모든 종결어미와의 결합에 제약이 없다.

(4) a. 먹어 분다.

b. 먹어 불카?

c. 먹어 불라.

d. 먹어 불게.

동작주가 제3자일 경우, '먹는다'가 단순한 행위의 보고임에 비해 (4a)는 '제3자가 먹어 버리니까 먹기 전에 네가 먹어야 한다.' 또는 '제3자가 먹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 '의외의 상황이 벌어짐'을 포함하여 알리고 있는 것이다.

동작주가 화자일 경우, (4b)는 정상적으로는 먹지 말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참지 못하니 먹을까?' 하는, 행위에 '의도'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4c)는 청자가 동작주가 되는데, '먹을 수 있는 걸 왜 안 먹니, 먹기만 하면 일이 순조롭게 될 것을'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으며, 제 3자의 '지시, 희망'에 대해 청자가 응하지 않을 때 '응해 주라'는 지시를 담고 있다. '먹으라'가 단순히 먹을 시간이 되어서 명령하는 것과는 달리 '의도적 행위'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4d)는 동작주가 우리로서, '제3자는 우리가 먹는 것을 바라지 않지만 먹어 버리자', 또는 '제3자는 우리가 먹을 것을 바라고 있는데 더 버티

지 말고 먹자.’는 뜻을 담고 있다. 먹는 것을 바라지 않는 상황이나 버티는 상황은 예정된 것인데 거기서 벗어나는 행위는 의도적이며 의외인 일이 된다.

‘-어 붙다’는 연결어미와 결합할 때 복잡한 양상을 띤다. ‘-어 붙다’의 결합 여부에 따라 후행절의 양상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 (5) a. 가윈 밥 먹으난(먹으니까)---
- b. 가윈 밥 먹어 부난(먹어 버리니까)---
- c. 가의가 밥 먹으난 다른 아이덜토 다 먹켄 ㅎ연게.
- d. 가의가 밥 먹어 부난 다른 아이덜은 다 못 먹켄 ㅎ연게.

(5a)의 후행절로는 ‘일 ㅎ여지켄 ㅎ연게.’, ‘일어산 간게.’ 또는 ‘다른 건 못 먹켄 ㅎ연게.’ 등이 올 수 있다. 그런데 (5b)의 후행절로서 ‘다른 건 못 먹켄 ㅎ연게.’, ‘일 못ㅎ켄 ㅎ연게’ 등은 올 수 있지만, ‘일어산 간게.’는 올 수 없다. 정상적인 발화 상황에서는 (5c, d)의 예와 같이 ‘-어 붙다’의 결합 여부에 따라 정반대의 내용이 후행절로 연결된다.

- (6) a. 느가 가민 가의도 같거여. 저쪽에서 반가워힐거여.
- b. 느가 가 불민 난 (그녀가) 외로워질 거여. 여긴 텅빌거여.

(6a)에는 가능한 후행절 ‘저쪽에서 반가워힐거여’가 (6b)에는 연결될 수 없다. 그것은 동작주가 ‘가 버린’ 의외의 상황을 저쪽에서는 모르기 때문이다. ‘가 버린다’는 상황은 이쪽에서 ‘의도적으로 떠남’이다. 다시 말해서 (6a)는 저쪽에서의 상황과 연결될 수 있지만 (6b)는 이쪽의 상황만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 (7) a. 그 사름 가걸랑(가거들랑) 가라.
- b. 그 사름 가 불걸랑(가 불거든, 가 불거들랑) 가라.

(7a)의 의미는 '그 사람 가는 행동이 보이면 너도 가라.(그 사람과 행동을 같이 해라.)'로 해석된다. 그런데 (7b)는 '그 사람 사라지면(이곳에서 없어짐) 그때 가라(방해물이 없을 때 시원한 상태에서)'는 의미로 해석된다. (7b)에는 '행동을 같이 하라.'는 의미가 없다. 이미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전성어미와의 결합에도 제약이 없다.

- (8) a. 가 분 사름덜 할 거여.
 b. 나 선생 설른 디 오랬져.
 c. 나 선생 설러 분 디 오랬져.
 d. 설르기사(설름사) 헝카?
 e. 설러 불기사(설러 불사) 헝카?

(8a)에서 간 사람은 모두 정상적인 상황에서 벗어나, '의외의 행위'를 했음을 화자가 인식하고 있다. (8b)에서 교직을 그만둔 것이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어난 일일 수 있지만 (8c)에서는 본인의 원에 의해서 그만쫘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8e)는 '본인의 의지에 의해 그만둘 리가 있겠는가' 하는 것으로 (8d)의 뜻과는 차이가 있다.

나. 상태 동사와 결합할 때

선행 용언이 상태동사일 때 '-어 붙다'는 '의외성'의 양태적 의미를 나타낸다.

- (9) a. 빨래 다 돌라수다(말랐습니다).
 b. 사과 다 돌라 붙어수다(베수다).

(9a)에서 빨래가 마른다는 것은 예정된 일이다. 그러나 (9b)에서 예정

된 일은 과일이 싱싱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런데 '의외로' 마르는 상황이 벌어졌다.

- (10) a. 어둑어 뻗저.
b. 이거 먹으면 나사 분다 먹으라.
(병이 낫지 않을 거라는 부정 인식 제거)

(10a)의 경우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일을 다 마치기 전에 어두워진 것은 '의외의 상황'인 것을 화자는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10b)에서 청자는 병이 낫지 않을 거라는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약을 먹으면 그러한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의외의 결과'가 올 수 있다고 하는 화자의 인식이 들어 있다.

- (11) a. 아프민---
b. 아파 불민---

(11a)의 후행절로서 '병원에 가야 한다.', '아무것도 못한다.' 등이 가능하다. 그러나 (11b) 다음에 '병원에 가야 한다.'는 올 수 없다. 부정적인 내용만이 올 수 있다. (11b)에서 아픈 상황은 '의외의 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 (12) a. 가윈 일등호여 부난---
b. 배 속으베 이서 부난(있으므로)---

(12a)에는 '기대감의 충족, 부담감 제거, 종결'의 의미가 보이지만, '더 원이 없을 것'이라는 내용이 후행절로 연결될 것으로 볼 때 '의외성'의 양태를 나타낸다고 하겠다. (12b) 다음에는 '어떤 일을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내용의 후행절이 연결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정상

적 상황은 배 밖의 얘기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의외의 상황임을 화자가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 (13) a. 날르난---
 b. 날러 부난---

(13a)에 후행하는 절은 긍정적 또는 부정적 내용이 모두 연결될 수 있다. 그러나 (13b)에 후행하는 절로서는 부정적인 내용만이 연결된다. 원래 '날다'는 긍정적 의미의 단어인데도 '-어 불다'가 결합되면서 부정적 내용만을 후행절로 요구한다. 정상적 상황은 적당해야 하는 것인데 의외의 상황임을 '-어 불다'로써 나타내는 것이다.

다. '-어시-', '-엄시-'와 결합할 때

앞에서 '-어 불다'가 '화자의 인식표현' 또는 '화자의 가치평가'를 나타낸다고 하는 해석은 '-어 불다'의 의미가 '종결' 또는 '완료'와는 거리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다음 '-어시-'와의 결합에서 '-어 불다'의 의미 특성을 '종결', '완료'인 것으로 해석하기가 쉽다.

- (14) a. 밥 먹어시냐?
 b. 밥 먹어 베시냐?

(14a)는 밥을 먹었는지 여부(객관적 상황)만 묻고 있는 데 비해, (14b)는 '먹지 않았으면 더 맛있는 걸 사줄 것을' 또는 '남았다면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것을'이란 '화자의 주관적 견해'를 덧붙이고 있는 것이다.

- (15) a. 난 밥 먹었져.
- b. 난 밥 먹어 뱃져.
- c. 먹어 배수다.

(15a)는 '단순한 행위의 완료에 대한 보고'임에 비해 (15b)는 '안 먹었다면 다른 상황이 전개될 수도(같이 먹을 수도, 나눠 줄 수도, 다른 걸 먹을 수도) 있음'을 화자가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15c)도 마찬가지다. '미리 말렸다면 안 먹을 수도 있었지만 이미 먹었다.' 또는 '먹지 말라고 했지만 사정이 있어서 먼저 먹었다.' 정도로 해석이 된다. 어쨌든 '청자의 기대에는 어긋나지만 나의 의도대로 행동했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 (15a)에도 '완료'의 의미가 있다는 것은, (15b, c)에서의 '완료'의 의미는 '어 버리다'가 담당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16) a. 그 사람 그다 갖걸랑 빨리 오랜 ㄴ르라.
 (그 사람 거기에 갔거든 빨리 오라고 말해라.)
- b. *그 사람 그다 가 불엇걸랑(뱃걸랑) 빨리 오랜 ㄴ르라.
 (?그 사람 거기에 가 버렸거든 빨리 오라고 말해라.)

똑같은 행위이지만 (16b)에서 가 버린 상황에 대한 판단은 화자가 하고 있는 것이다. (16b)에서 그 사람이 간 행위는 이곳에서 일어난 의외의 상황이기 때문에 청자는 감지할 수 없다. 따라서 '의외의 일'이라는 것을 청자가 판단할 수 없으므로 '가 불엇걸랑'은 쓸 수 없고, 따라서 (16b)는 비문이 되고 만다.

- (17) 먹어 불엇구나(뱃구나).

(17)은 동작주가 청자, 화자 또는 제3자가 될 수 있으며, '누구든지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었다'는 '의외의 행위'를 인식한 표현이다.

'엄서-'와의 결합에서 '-어 불다'의 의미에 '종결이 없음이 분명히 드러난다.

(18) a. 철순 감서.

b. 철순 가 불엄서(뱀서).

(전제-가서는 안 되는데, 가지 말라고 했는데)

(18a)와 (18b) 모두 '가고 있음'을 나타내지만, (18b)에는 그 '가는 행위'에 '의도'가 깔려 있으므로 화자가 받아들이기애 '의외'라는 평가를 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화자나 청자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음'으로 해석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19) a. 다 먹엄신가?

b. 다 먹어 부럼신가(비엄신가, 뱀신가)?

c. 다 먹어 부럼시민(비엄시민, 뱀시민) 큰일이여.

'다'를 '음식 모두'로 해석했을 때, (19a)는 '거의 먹어 가고 있는가' 확인하는 의문이지만, (19b)는 '모두 먹으면 안 되는데(남겨야 되는데) 모두 먹어 버리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을 드러내는 의문이다. 다음에 (19c)의 문장이 이어질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19b)는 동작주의 의도적 행위로서 화자에게는 의외의 상황이라는 평가가 깔려 있는 문장이다.

이상에서 볼 때 방언의 '-어 불다'에서는 '종결', '완료'라는 의미를 발견할 수 없으며,¹⁰⁾ '의외성'의 양태적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0) 권재일(1994:111)은 '어 버리다'의 의미 특성을 '종결'로 보았다. '종결'이 문맥에 따라 기대에 어긋나는 결과가 될 수도 있고 부담을 제거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손세모들(1996:191)도 '버리다'가 표현하는 '종결'은 문맥에서 여러 가지의 의

3. 결론

제주 방언의 보조용언 '-어 붙다'는 본용언 '리다'가 그 형태를 잃고 문법화하여, 화자의 가치평가를 나타내는 양태적 의미 기능을 가진다.

'-어 붙다'는 동작동사와 결합하여 동작주의 행위가 의도적임을 표시하며, 그 행위에 대한 화자의 '의외성' 인식을 나타낸다.

'-어 붙다'는 상태동사와 결합하여 상황이 의외로 일어남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나타낸다.

'-엄시-'와의 결합에서 '-어 붙다'의 의미 특성이 '종결'이 아님이 분명히 드러난다.

〈참고문헌〉

- 권재일(1985), 국어의 복합문 구성 연구, 집문당.
권재일(1994), 한국어 문법의 연구, 서광학술자료사.
김기혁(1996), 국어 문법 연구, 도서출판 박이정.
김미영(1996), “국어 용언의 접어화에 관한 역사적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지홍(1982), “제주도 방언의 동사구 보문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학위논문.
손세모들(1996), 국어 보조용언 연구, 한국 문화사.
이성하(1998), 문법화의 이해, 한국문화사.
이태영(1993), 국어 동사의 문법화 연구, 한신문화사.

미(직접적인 심리태도를 표시하거나 함축의미를 나타냄)로 해석된다고 하고 있다. 또 '종결'은 완료의 '강조'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면서 '아쉬움'과 '마음의 부담제거' 혹은 '시원함' 등의 심리 태도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그러나 방언에서 '-어 붙다'가 '-엄시-'와 결합할 때 '종결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 '종결'의 의미는 '먹어 버렸다'는 문장에서 '-었-'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현배(1929, 열다섯 번째 고침 1989), 우리말본, 정음문화사.

허 응(1975/1988), 우리 옛말본, 샘문화사.

황병순(1987), 국어 상 표시 복합동사 연구, 형설출판사.

표준국어대사전(1999), 국립국어연구원.

제주어사전(1995), 제주도.

한국구비문학대계(9-1·2·3), 한국정신문화연구원.